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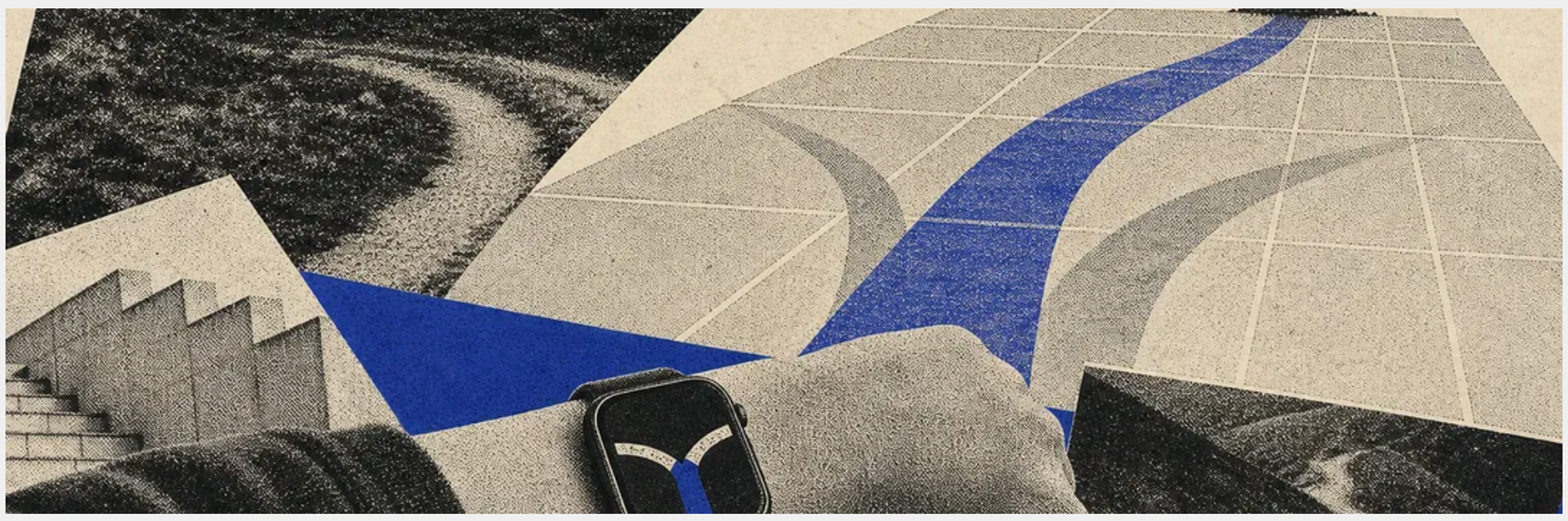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64 호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 오늘의 AI

AI

구글 리서치, 웨어러블 건강 나이 코칭 연구 공개

스마트워치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건강 나이를 계산하고 12주 뒤를 시뮬레이션해 코칭 계획을 짜는 연구용 프레임워크다. 생활습관 코치들은 이 계획을 71.4%의 평가에서 최고 계획으로 골랐다.



AI · 구글 리서치, 웨어러블 건강 나이 코칭 연구 공개

구글 리서치가 11월 11일(현지 시간) 스마트워치가 수동으로 재는 신호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강 나이를 계산하고, 생활 습관을 바꿨을 때 12주 뒤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맞춤 코칭 계획을 짜 주는 연구용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구글 리서치에 따르면 이 체계는 핏빗 사용자 약 10만 명의 228만 인주(person-week) 데이터로 학습한 월드 모델과 언어 모델 코칭 에이전트를 묶었다. 공인 생활습관 코치들은 블라인드 비교에서 이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계획을 71.4%의 평가에서 최고 계획으로 골랐다. 심혈관·신장·대사 질환을 한데 묶은 CKM 증후군의 조기 신호를 혈액 검사와 함께 잡아내는 동반 연구도 함께 나왔다.

출발점은 나이라는 숫자의 한계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의 몸 상태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혈액이나 센서로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시계들이 나와 있지만, 구글 리서치는 대부분이 출생 연도를 맞히도록 학습돼 바꿀 수 없는 특성에 기대거나 어떤 습관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여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연구진이 만든 코칭 가능한 건강 나이(CHA)는 안정 시 심박수, 하루 걸음 수, 수면 시간, 주간 활동 영역 시간(Active Zone Minutes) 네 가지를 핵심 입력으로 쓴다. 최대 산소 섭취량(VO2max), 수면 규칙성, 인슐린 저항성은 있을 때만 더한다. 활동적인 사람이 안정 시 심박수도 낮고 잠도 잘 자는 겹침을 수학적으로 보정해, 습관마다 건강 나이 차이에 기여하는 몫을 따로 떼어 낸다.

검증은 세 코호트에서 이뤄졌다.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 참가자 2만 2,748명을 6만 8,000인년 넘게 추적한 결과, 처음에 건강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았던 건강한 참가자는 이후 8년 동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이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과반 전환

건강 나이가 지금의 위치라면, 코칭에는 앞으로의 경로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행동 조건부 월드 모델 센서WM(SensorWM)을 만들었다. 2주치 웨어러블 데이터를 받으면 걸음 수, 수면, 유산소 운동 루틴을 다르게 가져갔을 때 생리 지표 20개가 12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다. 꾸준히 더 걷고 더 자면 몇 주에 걸쳐 안정 시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까지 따라 좋아지는 연쇄 효과를 정적인 계산기로는 잡지 못한다는 것이 설계 이유다. 논문 기준 예측 정확도(R^2)는 0.664로, 범용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TimesFM의 0.513을 앞섰다.

계획은 세 단계로 만들어진다. 센서WM이 한 사람마다 12주짜리 습관 조합 125개를 굴려 지금 습관을 유지할 때의 궤적과 비교하고, 최적화기가 그 사람의 과거 습관 변화 폭과 임상 안전 한계를 따져 현실적인 목표를 고른 뒤, 언어 모델이 이를 단계적인 12주 코칭 계획으로 풀어 쓴다. 습관을 유연하게 바꿔 온 사람에게는 건강 나이 2.3년 감소라는 공격적인 목표가, 일상이 빡빡한 사람에게는 1.3년 감소라는 완만한 목표가 잡히는 식이다. 구글 리서치의 제이납 에스마일푸르·아메드 메트왈리 연구과학자는 "가장 공격적인 운동 계획도 2주 차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든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금 습관을 이어 갈 때와 바꿀 때의 궤적을 나란히 보여 주는 대비 항목에서는 의사 평가 기준 92% 대 8%로 차이가 벌어졌다. 논문은 반대 방향의 결과도 함께 실었다. 일부 하위 집단에서 의사들은 12주 생물학적 타당성을 시뮬레이션 계획 76%, 일반 계획 82%로 매겼고, 짧은 습관 변화 뒤 건강 나이가 4~5년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다.

동반 연구는 혈액 검사로 장기를 들여다본다. WEAR-ME 연구 참가자 819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신호에 콜레스테롤 대 HDL 비율(심혈관), 사구체 여과율 eGFR(신장), 인슐린 저항성 지표 HOMA-IR(대사)를 붙였다. 62쪽 분량의 이 논문에 따르면 참가자의 29.0%에서 의미 있는 이상이 나타났고, 단일 유형으로는 심혈관 13.3%, 대사 9.1%, 신장 6.25% 순이었다. 대사와 심혈관 이상은 서로 연관됐지만(r=0.26) 초기 신장 기능 저하는 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대사·심혈관 이중 이상은 2.2%에 그쳤다. 이렇게 만든 CKM 건강 나이 격차는 미국심장협회 생활 필수 8요소 점수와 r=−0.58, 대사증후군 중증도와 r=0.65로 맞물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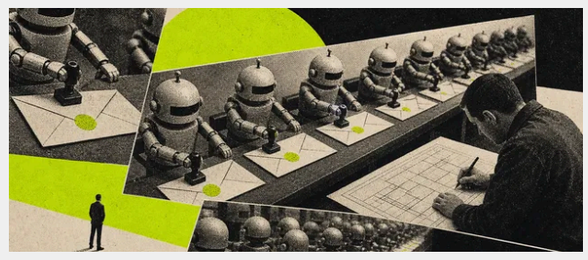
기자의 눈으로 보면 이번 발표의 무게는 숫자 하나보다 질문을 바꾼 데 있다. 스마트워치는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데서 멈춰 왔는데, 이 연구는 30분 더 자거나 빠르게 걷기를 더하면 석 달 뒤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다만 평가는 과거 연구 코호트로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됐고, 구글 리서치는 두 모델이 임상 진단 도구가 아닌 연구용 시제품이라고 명시했다. 논문은 센서WM이 무작위 개입 시험이 아닌 관찰 데이터로 학습돼 그 예측이 인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실제 사용자 대상 전향적 무작위 시험

오늘 지면

1 AI 구글 리서치, 웨어러블 건강 나이 코칭 연구 공개
2 AI 구글 딥마인드, AlphaGenome 2 공개
3 AI 딥마인드, Gemini Robotics 2.5 공개
4 AI 구글 딥마인드, AlphaProof Code 공개
5 AI 오픈AI, ChatGPT 기업 프로필 베타 출시
6 기후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과반 전환

이 지면은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구글 딥마인드, AlphaProof Code 공개

구글 딥마인드가 11월 10일(현지 시간) AI 에이전트 여럿이 소프트웨어의 보안 성질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형식 검증 프레임워크 AlphaProof Code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이 도구로 시그널 프로토콜의 참조 구현인 libsignal이 실제 기기에서 돌아가는 기계어 수준에서 핵심 보안 성질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그널 프로토콜은 시그널 앱과 구글 메시지에 쓰이고, 변형판이 왓츠앱과 메타 메신저에도 들어가 있어 수십억 명의 대화를 보호

▶ 2면에 계속

AI

구글 딥마인드, AlphaGenome 2 공개



구글 딥마인드가 11월 11일(현지 시간) DNA 서열과 그 변이가 사람의 특정 세포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하는 차세대 모델 AlphaGenome 2를 공개했다. 딥마인드에 따르면 AlphaGenome 2는 68개 조직에 걸친 1억 개가 넘는 개별 세포 프로필로 학습했고, 세포 안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변이를 이전 최고 모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찾아낸다. 모델은 공개 당일부터 AlphaGenome API로 비상업 연구에 쓸 수 있고, 상업 연구에는 비공개 프리뷰로 제공된다. 딥마인드는 이 모델이 정적인 세포 지도를 "인간 유전학을 위한 예측 엔진"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몸의 모든 세포는 같은 DNA를 지니지만, 심장 근육 세포와 감염과 싸우는 면역 세포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켜고 끈다.

▶ 2면에 계속

AI

딥마인드, Gemini Robotics 2.5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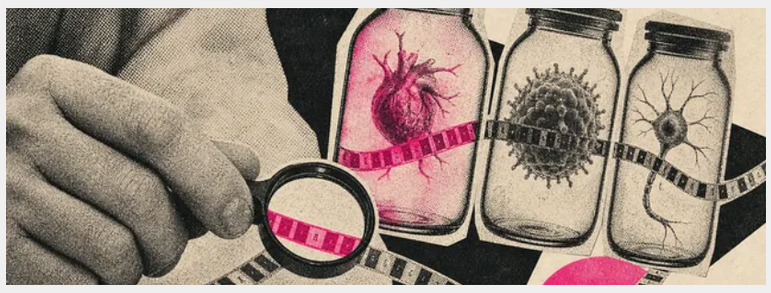
구글 딥마인드가 11월 10일(현지 시간) 로봇 제어 모델 Gemini Robotics 2.5를 공개했다. 카메라 영상과 언어 지시를 받아 로봇의 동작으로 바꾸는 비전-언어-행동(VLA) 모델로, 딥마인드는 지금까지 내놓은 VLA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밝혔다. 딥마인드에 따르면 Gemini Robotics 2.5는 2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작업에서 이전 기준 모델보다 작업 종류에 따라 30~100% 높은 성공률을 냈고, 같은 작업을 20~30% 빨리 끝냈다. 앱트로닉의 휴머노이드 Apollo 2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실제 생산 라인에서 이 모델로 자동차 부품을 골라 담는 작업을 96% 성공률로 해냈다. 모델은 딥마인드의 로봇 협력사들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구글 딥마인드, AlphaGenome 2 공개



1 구글 딥마인드는 11월 11일 68개 조직, 1억 개가 넘는 개별 세포 프로필로 학습한 조건부 DNA 모델 AlphaGenome 2를 공개하고 비상업 연구용 API를 열었다.

2 TenK10K 면역 세포 지도에서 인과 변이 재현율은 30%로 이전 모델의 16%를 넘었고, 효과 방향 예측은 43%로 23%를 앞섰다.

3 재학습 없이 세포 수십 개의 단일세포 데이터로 새 세포 상태를 예측하고, 약 700만 개 변이의 예측값을 미리 계산해 공개했다.

이번 버전의 핵심 변화는 설계다. 첫 모델은 염기 100만 개 길이의 DNA 서열을 받아 여러 조직의 실험 수천 건을 한꺼번에 병렬로 예측했는데, 딥마인드는 이 방식이 모델의 용량을 얇게 퍼뜨려 가까운 세포 유형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잡기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lphaGenome 2는 조직이나 세포 유형, 세포 상태로 정의한 조건 하나를 DNA 서열과 함께 입력받아 그 조건 하나만 예측하는 조건부 모델이다. 조건은 아키텍처의 모든 단계에 들어가, 같은 DNA 구간이 세포마다 다르게 읽히는 방식을 배우게 한다. 단일세포 유전자 활성 같은 측정값 하나만 넣어도 측정하지 않은 염색질 접근성을 예측하는 교차 모달 보완도 가능해져, 연구자가 다음 실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쓸 수 있다.

학습 데이터도 넓어졌다. 딥마인드는 사람과 생쥐의 벌크·단일세포 데이터를 함께 썼고, 개별 세포 프로필은 1억 700만 개가 넘는다. 메탈이 확인한 78쪽 분량의 논문 PDF에 따르면 AlphaGenome 2는 사전 학습, 조건 정제, 증류, 사후 학습의 4단계로 훈련됐다. 36개 연구에서 나온 단일세포 RNA·ATAC 의사벌크 트랙 3,977개와, 사람 기준 조건 185개에 걸친 세포 유형별 CpG 메틸화 데이터가 새로 들어갔다. 예측 항목은 유전자 발현, 히스톤 변형, 염색질 접근성 같은 기존 항목에 연구자들이 많이 요청해 온 DNA 메틸화가 더해졌다.

성능 차이는 면역 세포에서 두드러졌다. 1차 면역 세포 28종을 담은 대규모 단일세포 지도 TenK10K에서 AlphaGenome 2는 인과 변이의 30%를 찾아내, 단일세포 데이터로 미세조정한 첫 AlphaGenome과 다른 특화 도구의 16%를 크게 앞섰다. 유전자 효과의 방향까지 맞힌 비율은 43%로 비교 대상의 23%보다 높았다. 논문은 이를 정밀도 90%에서 인과 단일세포 eQTL 재현율을 두 배로 끌어올린 결과로 정리했다. 학습에 쓰지 않은 게놈 구간에서도 같은 조직 안 세포 유형 간 발현 차이를 더 많이 설명했고, 혈액 줄기세포가 적혈구와 면역 계통으로 분화하는 동안의 연속적인 발현 변화를 따라갔다.

◀ 1면에서 계속

AI

딥마인드, Gemini Robotics 2.5 공개



1 구글 딥마인드는 11월 10일 비전-언어-행동 모델 Gemini Robotics 2.5를 공개하고 로봇 협력사들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2 200개가 넘는 작업에서 이전 기준 모델보다 성공률이 30~100% 높고 속도는 20~30% 빨랐으며, Apollo 2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장 키팅 실증에서 96% 성공률을 냈다.

3 Gemini 4 Argon은 새 오픈소스 벤치마크 ASIMOV-Jailbreak에서 탈옥 저항률 99.5%를 기록했고, 안전 보고서는 기능 안전 구조를 따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장 실증은 헝가리 케치케메트와 독일 진델핑겐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서 진행됐다. Apollo 2가 맡은 일은 키팅이다. 대량 부품 통에 섞여 있는 금속 브래킷을 하나씩 집어, 라인에 들어오는 차량마다 필요한 순서대로 분류 용기에 넣는 반복 작업이다. 일은 두 모델이 나눠 맡는다. 체화 추론 모델 Gemini Robotics ER이 작업 흐름을 추적하고, Gemini Robotics 2.5 행동 모델이 손과 팔을 움직이며 용기에 빈칸이 생기면 바로잡는다. 딥마인드는 이런 단조로운 준비 작업을 로봇에 넘기면 기술자가 복잡한 조립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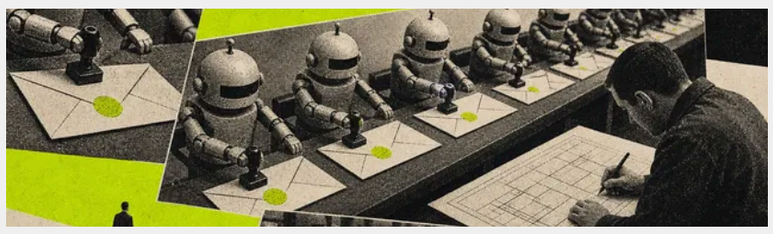
제프 카데나스 앱트로닉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우리가 Apollo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쓸모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Apollo 2와 Gemini Robotics를 결합하자 "단 몇 주의 사후 학습으로 모델이 극적으로 좋아졌고, 메르세데스-벤츠 생산 현장으로 옮겨서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탈은 Gemini Robotics 2를 단 Apollo가 부엌일에서 더 고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두 달여 만에 같은 로봇이 자동차 공장 라인의 반복 작업으로 무대를 옮겼다.

메탈이 확인한 딥마인드의 공장 실증 영상은 26초 분량이고, 화면 구석에 자율 동작을 2배속으로 보여 준다는 표시가 붙어 있다. 발표문의 해당 대목에는 96%를 얻기까지의 시행 횟수와 평가 기간, 작업 중 사람이 개입한 빈도가 적혀 있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96%는 부품 분류와 키팅이라는 특정 작업의 실증 결과이며 자동차 제조 공정 전체의 성공률이 아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X에 올린 29초짜리 소개 영상은 화면을 아홉 칸으로 나눠 양팔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공구를 정리하고 옷을 걸고 선물 상자에 리본을 묶는 장면을 한꺼번에 보여 주며, 게시 하루 남짓 만에 조회수 37만 9,720회와 좋아요 4,033개를 모았다.

◀ 1면에서 계속

AI

구글 딥마인드, AlphaProof Code 공개



1 구글 딥마인드는 11월 10일 형식 검증 프레임워크 AlphaProof Code를 공개하고, 시그널 프로토콜 참조 구현 libsignal의 핵심 보안 성질을 기계어 수준에서 증명했다.

2 Gemini 4 Carbon 기반 에이전트 팀이 약 650만 줄의 Lean 증명을 만들었고, 사람이 믿어야 하는 명세와 의미론은 약 2만 6,000줄로 줄었다.

3 과거 버그 두 건을 되살린 실험에서 시스템은 버그가 든 실행 파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고, 연구진은 명세와 증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AlphaProof Code는 이 일을 연구팀처럼 나눈다. 사람은 무엇을 증명할지 정하고, 에이전트 무리가 증명을 해낸다. 명세 작성 에이전트가 연구 논문의 보안 모델을 증명 언어 Lean의 정리로 옮기면, 다른 모델 계열의 검토 에이전트가 원 논문과 실제 코드에 충실한지 비판하고, 사람이 최종 승인한다. 명세 작업에는 Gemini 4 Carbon과 Claude Opus 5.5 기반 에이전트가 함께 쓰였다. 증명은 전부 Gemini 4 Carbon 기반 에이전트 팀이 만들었고, 논문 저자 가운데 증명 코드를 직접 쓴 사람은 없었다. 한 팀은 보통 40~80개 에이전트로 꾸려져 한 대의 컴퓨터에서 24~72시간 돌았다. 작업을 나누는 오케스트레이터, 팀 리더,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아키텍트, 증명을 합치는 통합 담당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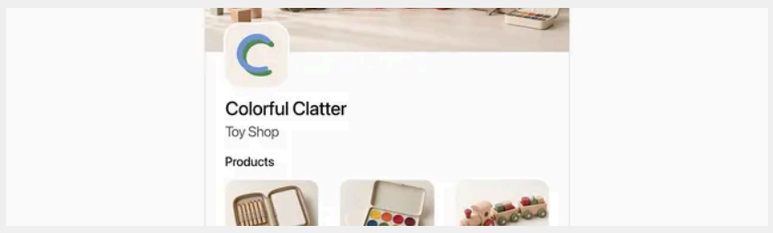
규모는 이렇다. 에이전트가 만든 증명은 약 650만 줄의 Lean 코드다. 이 가운데 530만 줄이 실행 파일 자체에 관한 증명이고, 계산 모델 증명이 약 86만 줄, 기호 모델 증명이 약 35만 줄이다. 검증 대상인 libsignal 코드는 약 560KB, AArch64 명령어로 약 14만 개다. 사람이 읽고 믿어야 하는 부분은 명세 약 1만 8,000줄과 AArch64 의미론 약 8,000줄을 합친 약 2만 6,000줄로 줄었다. 연구진이 Lean으로 작성한 이 기계어 의미론은 명령어 467개와 시스템 호출 31개를 다룬다. 딥마인드는 에이전트가 증명을 스스로 감사해 사람의 재검토가 필요한 곳으로 표시한 부분이 코드베이스의 1%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Lean이 자동으로 검사한다.

증명된 내용은 시그널의 양자 내성 핸드셰이크 PQXDH와 트리플 래칫이다. 연구진은 기기가 일시적으로 탈취돼도 그 이전 메시지가 안전하다는 전방 비밀성, 탈취 뒤 새 키 교환이 이뤄지면 다시 안전해지는 사후 침해 보안, 인증, 핸드셰이크 비밀성을 기호 모델과 계산 모델 두 방식으로 증명했다. 검증 대상은 libsignal 0.105.4판의 일대일 대화 코드다. 논문은 수정하지 않은 Rust 코드를 표준 컴파일러로 빌드한 실행 파일에 대해 증명했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컴파일러에 버그가 있었다면 증명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AI

오픈AI, ChatGPT 기업 프로필 베타 출시

기업이 Business Hub에서 ChatGPT 속 기업 프로필을 인증받아 정보를 고치고 언급·클릭 통계를 본다. 미국 전자상거래·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고객 질문에 답하는 Business Agent도 만들 수 있다.



1 오픈AI는 11월 10일 Businesses in ChatGPT를 베타로 공개하고, 기업이 Business Hub에서 기업 프로필을 인증받아 정보와 상품 피드를 관리하게 했다.

2 통계 화면은 언급 횟수, 웹사이트 클릭 수, 발견 토픽을 집계로 보여 주며, 오픈AI는 사용자 대화나 Business Agent 대화를 기업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3 미국 전자상거래·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Business Agent를 만들 수 있고, 같은 에이전트를 ChatGPT 광고의 도착지로 후원할 수도 있다.

오픈AI가 11월 10일(미국 시간) 기업이 ChatGPT 안에 자기 프로필을 갖는 서비스 Businesses in ChatGPT를 베타로 공개했다. 기업은 새 관리 도구 Business Hub에서 자기 회사를 인증받아 기업 프로필을 차지하고, 소개와 영업 정보를 직접 고치며, ChatGPT 대화에서 회사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집계 통계를 본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여기에 더해 고객 질문에 답하는 전용 AI 상담 창구 Business Agent를 만들 수 있다. 오픈AI는 이 서비스가 매주 ChatGPT를 쓰는 12억 명과 기업을 잇는 새 통로라고 밝혔다.

프로필을 차지하는 절차는 인증에서 시작한다. 오픈AI 발표문에 따르면 ChatGPT가 서비스되는 지역의 자격 있는 기업이면 Business Hub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증을 마치면 핵심 정보를 고치고 가격과 재고가 담긴 상품 피드를 올린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도메인, 쇼피파이 계정 가운데 하나로 소유를 확인하고, 관리자는 별도로 Persona를 통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정보 수정과 통계 열람, 에이전트 제작이 열린다. 신원 확인이 끝나면 프로필에 파란 인증 표시가 붙는다. 쇼피파이 판매자는 Business Hub나 쇼피파이 관리자 화면에서 매장을 바로 연결하고, 기존 Enterprise 고객과 광고주는 오픈AI 담당자를 통해 신청한다. 지역 상점과 식당은 지금은 미국에 이미 있는 목록만 차지할 수 있다.

통계 화면은 언급 횟수, 웹사이트 클릭 수, 그리고 회사 웹사이트가 인용된 대화에 자주 나오는 주제인 발견 토픽을 보여 준다. 언급을 세는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업체는 ChatGPT가 그 매장 위치를 결과로 보여 주면 언급으로 세고, 온라인 업체는 ChatGPT가 회사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언급이 된다. 오픈AI 대변인은 "브랜드 이름만 나온 것은 세지 않는다"며 웹사이트 클릭도 실제 방문이나 구매가 아니라 ChatGPT 화면의 링크 클릭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사용자 대화나 Business Agent 대화를 기업에 넘기지 않으며, 통계는 일정 수 이상의 대화가 쌓였을 때만 집계로 보여 준다고 밝혔다.

기 후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과반 전환

30년 만에 민주당 과반이 된 위원회가 데이터센터용 10GW 가스 증설을 다시 따져 볼 전망이다. 가정 전기 요금은 최근 몇 년 사이 33% 올랐다.



1 지난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두 자리를 가져가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의 과반이 됐다.

2 위원회는 2025년 12월 데이터센터 수요를 이유로 조지아 파워의 10GW 가까운 가스 발전·배터리 증설을 승인했고, 새 가스 발전소 5곳의 수명 비용은 500억~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3 새 다수파는 증설 재검토, 4월 최대 6GW 추가 요청 심사,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 강화와 요금 안건을 예고했다.

미국 조지아주 전력 요금과 데이터센터 전원을 결정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가 30년 만에 민주당 과반으로 바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선거에서 민주당은 조지아주 전역 선거에서 모두 이겼고, 위원회 두 자리도 가져갔다. 당선인 실라 에드워즈와 재선에 성공한 피터 허버드 위원은 주 최대 전력회사 조지아 파워의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 전환으로 데이터센터를 위해 승인된 미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화석연료 발전 증설 계획이 다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의 출발점은 2025년 12월 결정이다. 당시 공화당이 다수였던 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이유로 조지아 파워가 가스 발전소와 배터리를 합쳐 10GW 가까운 설비를 새로 짓는 계획을 승인했다. 위원회 실무진은 회사가 근거로 든 데이터센터 성장 전망이 투기적이라며 그 3분의 1 정도만 우선 승인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부환경법센터 추산에 따르면 이 계획에 포함된 새 가스 발전소 5곳은 수십 년 수명 동안 고객에게 500억~6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우고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고착시킨다.

다섯 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 세 명은 모두 이 증설에 반대 뜻을 밝혀 왔다. 기존 민주당 위원인 허버드와 얼리샤 존슨은 올해 2월 환경단체가 낸 재검토 안건에 찬성했지만 3대2로 부결됐다. 두 위원은 회사가 데이터센터 성장이 그 비용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파워는 몇 달 뒤인 4월, 2GW에서 6GW 사이의 급전 가능 설비를 더 늘리겠다는 새 요청을 위원회에 냈고, 비판 측은 이번에도 태양광이나 배터리보다 가스 발전소 쪽으로 기울 것을 우려한다.